

신행의 바른 길 닦아요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신해행증' 주제로 18일부터 4주간 개최

광주승보회 · 본사 주최...KT센터 대강당서

“‘信(믿음)·解(이해)·行(실천)·證(깨달음)’의 체계를 바로 알고 신행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불교강좌인 2007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해월)와 광주 승보회(회장 석장, 문병자 주지) 공동주최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불교의 기본 신행체제인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일정은 4월 18일 해거 스님(서유 금강선원 선원장)의 '믿음(信): 불자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25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이해(解): 바른게 아는 것, 정법의 출발', 5월 2일 월호 스님(쌍계사 강원 강사)이 '실천(行): 믿음은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것' 9일 화향식예는 영진 스님(전 조계종 기조선원장)이 '증득(證): 잡다한 불

법은 깨달음에 있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신해행증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재가불자로서의 신행활동의 기본 과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의 시간은 총 70~80분으로 강의가 끝난뒤에는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 강의중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사와 청중들이 함께 호흡하는 열린 법회로 진행된다.

또 오후 6시 40분부터 식전 행사로 영상물 시청과 저녁예불이 진행되며, 강의 후에는 보왕삼매론이 봉독된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 진화 스님(중심사 주지)은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광주지역 불교계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틀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연결 고리이자, 불자 대중의 의식화와 불교사상의 대중화를



해거 스님 미산 스님 월호 스님 영진 스님

추구하기 위한 열린 대강좌"라며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열린 대중 강좌 형태를 취하며 불자대중과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광주 시청 및 각 구청 불자회와 운전자회, 포교사단 등 광주지역 30여 재가신행단체가 참가하고 있다.062)234-0090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KCRP 5월 5일 방문 교류협력 논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 대표회장 최근덕 성균관장)는 5월 5~8일 평양을 방문한다.

불교, 천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조계종,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국

내 종교계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KCRP는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KCR · 위원장 장재인) 초청으로 방북해 남북 종교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평양방문은 북측 KCR과 교류협력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했으며 최근덕 대표회장을 비롯해 각 종단 지도급 인사 40여 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A/S : 060-700-1080



26일 개관한 불교중앙박물관을 찾은 불자들이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관람하고 있다. 관람기사 4면 사진=박재환 기자

어제와의 대화로 내일 연다

3월 26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특별전 '붓다' 5월 24일까지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문화 진수를 보여줄 불교중앙박물관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경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 문을 열었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조계종 원로위원장 혜정 동춘 원명 초우 스님, 종회회장 자승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과 스님, 김의정 조계종중앙신도회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은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는 물론 성보를 통해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불교 유형문화의 진수를 한눈에 보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래를 열어가는 명실상부한 기념비적 종합문화공간이 완성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 원 고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사바세계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이요, 낱알 증생들의 삶이 모두 성보 아님이 없거든 모름지기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의 도리를 이 자리에서 깨치는 정각도량이 되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축하메시지에서 "불교중앙박물관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식후행사로는 전시개막식 테이프 커팅과 현판제막식이 진행됐으며, 전시장 관람과 리셉션이 이어졌다. 불교중앙박물관은 360여 평의 전시실과 150여 평의 수장시설, 30여 평의 보존처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제1전시실은 '불교미술', 제2전시실은 '불교역사', 제3전시실은 '불교공예'를 중심으로 꾸며져 있으며, 시청각실도 갖춰져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과 반환에 대한 의견차를 겪고 있는 '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은 결국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지 못했다. 조계종은 해당 유물의 전시 부스를 비워두고 반환이 이뤄지지 못한

과정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한 채 전시하고 있다.

금동불입상(국보 제182호)과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 등 12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는 개관특별전 '붓다(佛)'는 5월 24일까지 계속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어른 2천원, 학생 1천원, 스님과 장애인, 6세미만 미취학 아동은 무료이며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는 50% 할인혜택이 있다. 매주 월요일 휴관.02)2011-196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어린이지도사

4월부터 자격증 갱신

불교어린이지도사증 교부 후 3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자격갱신이 실시된다.

갱신대상자는 자격갱신 요청서,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2매, 3년간 포교활동 보고서, 자격 갱신료 등을 첨부해 4월 4일부터 6일까지 조계종 포교원(02-2011-1904)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I Love Buddha / 탐진치

용정운(www.zentoon.com)

우리의 마음은 열사없이 끌려다닙니다. 탐심에 끌려다니고... 탐(貪) 자기가 즐기는 대상을 탐내서 구하고자 하는 것

반발하고 미워하고 분개하고 신경질내고 화내는 것 진(瞋) 자기에게 끌려다니고...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치(痴) 그러니... 탐진치에 끌려다니지 않게 마음을 좌 잡으세요...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등 팔각봉축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